사 설

법인관리법의 숙제

조계종이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인관리법이 불교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조계종은 '삼보정재의 무분별한 사용제한'과 '종지종통 받들기'를 내세워 오랜 기간의 고심끝에 이 법의 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조계종의 유관법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인관리법 제정안은 일정부분 긍정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있다.

그간 종단 내부에 형성된 법인들이 자체적 역량강화와 목적사업 추진에 힘을 쏟아 온 반면 종단의 체제에 대한 미온적인 협조가 문제시된 사례도 있다. 또 조계종 소속을 표방하는 법인체가 활동내용상 법인을 우선함으로 종단의 결속력 저하를 가져 온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조계종이 종단내 유관법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장치를 두려는데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조계종이 고심했던 만큼이 법제정에 앞서 기존의 법인들은 간만치 않은 반발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의 법인들은 한결같이 '법인은 국가의 법이 인정하는 법인격체로서 어떤 형태로든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없다'는데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법인은 이미 그 자체로서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는 법인격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이란 법률상 조직을 가진 사람의 집단(사단)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제공된 재산의 집합(재단)에 대하여 법률이 권리능력(법주체성)을 부여한 것이다. 일단 법인이 되면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법인에 귀속된 재산도 그 출연자와는 관계없이 독립성을 인정받고 보호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계종이 입법예고한 법인관리법은 시행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조계종은 그런 난항의 고충을 예견하면서도 이 법의 제정안을 내놓은 만큼 기존 법인들의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등 화합적 방법으로 난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 사용의 규정이나 일부 법인의 임원 후보를 복수 추천토록 하고 임원의 구성에있어 조계종 승려가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토록한 조항, 등록·정관 개정등 규정을 어길 경우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들은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 할 수 있어 운영상 악재가 될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일부 기존 법인의 인적 구성과 운영성격이 종단의 관리 아래 놓여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타종교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법인이나 불교TV처럼 주식회사 형태인 법인에 대한 관리의 한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답이 시원스레 나오기 어렵다는 우려는 쉽게 간과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어쨌거나 조계종의 법인관리법 제정안이 논쟁의 선을 넘어 탈·분종의 위기로까지 번져가서는 안된다. 아무리 좋은 목적도 실행 과정이 좋지 못하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게 마련이다. 기왕에 제정안을 내놓은 조계종은 좀더 열린 가슴으로 기존 법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안을 다듬어 내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법인들도 거부의사 표현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기존의 권한과 법적인 보호범위를 포기해서는 안되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발전적인 대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인관리법 제정안이 산문밖의 사람들에게 권리다툼이나 재산싸움쯤으로 보여진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 불교계로서는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열 린 마 당 — 선거와 구업

4·11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말이 제세상을 만난 듯 수없는 공약이 난무한다. 여기에는 남을 짓밟더라도 당선하자는 비방에서 실현불가능한 공약(空約)성 공약까지 나라가 온통 '말' 잔치로 어수선하다.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정치인들의 독설과 비방은 곧 구업이다. 그 업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되레 국민이 정치 걱정…무주상 보시 실천해야

도 문 〈대각사 주지〉

얼마전 모 정치인의 방문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선거철이면 이들 정치인들이 인사를 빙자해 찾아와 수없이 많은 말들을 내뱉고 가곤한다. 한결같이 국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의 말을 듣다보면 오늘의 정치풍토가 강태공이 말한 육도(六韜)가운데 견도(犬韜)인을 연상케 한다. 서로 물고 찢고하는 개싸움판이다. 그러다보니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형국이 되고말았다.

견도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바라밀을 행해야 한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최소한 보시바라밀을 행해야 한다. 어리석은 이들에게 진리를 들려주는 법(法)보시, 공포에 떠는 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애(無)보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 주는 재(財)보시. 물론 보시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주상 보시를 해야한다. 이러한 실천행이 있는 정치인이 있을 때 견도인 오늘의 정치판이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유권자는 밝은안목(지혜)으로 개싸움하는이들을 가려내도록 해야하겠다.

현명한 유권자 '거친말하는 천한사람' 가려야

조홍식 〈성균관대 덕예교수〉

4·11총선을 한달 앞두고 여야정당은 마치 사활을 건 조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칠고 삭막할 뿐이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예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거친 말과 실현성에 의문이 가는 공약들을 듣고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의 발전정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말은 정치인의 교양과 당사자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상대방을 공격해 그 결과로 자신의 주가를 올리려 거친 말들을 쏟아내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은 현명하다.

동양의 고전에는 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 공자는 〈논어〉에서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는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있다. 즉 번드르한 말을 앞세우는 사람치고 어진 이가 드물다는 것이다.

불교의 〈숫타니파타〉의 가르침도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천한 사람이 되거나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그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된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의해 판단치 말고 성실성과 진실성이 담긴 행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선거를 앞두고 거칠고 삭막한 세태를 꾸짖는 가르침이다.

"실현가능한 공약 내세울때 민주정치 지름길"

손동일 〈회사원〉

항상 선거때만 되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급상승한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모든 분야에 있어 여야당이 하나같이 선거공약을 통해 국가발전을 강력히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15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짧은 시간내에 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공약들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서도 지난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을 향해 달콤한 공약들을 물밀듯이 쏟아 붓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선심성공약들이 대거 나열돼 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허황되고 실현불가능한 공약, 이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공약, 지난 선거때의 공약을 재탕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언제까지 이런 선거풍토가 되풀이 될지 자못 궁금하다.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실현성이 없는 선심성공약들로 유권자들의 눈을 현혹시키려는 공약을 눈앞에 놓고 과연 누구를,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난감하다. 일부에서는 공명선거를 부르짖고 있지만 이에 앞서 가능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선행된다면 공명선거는 자연히 이루어 질 것은 물론 민주정치의 첩경이 될 것이다.

말…말…말

▲金 총재에게 김필종(金必鍾·필히 종친다)이란 이름을 무료로 작명(作名)해 주고 싶다.

▲신한국당 광고에는 '최진실'씨만 나오지 '진실성'은 없다. 인기탤런트를 앞세워 정치선전을 펼치는 모습에서 쇠락하는 졸부의 말로를 보는것 같다.

▲김영삼 대통령의 독선 독주 독단의 3독정치는 하프라인까지 뛰어나간 골키퍼가 축구를 망치듯 국정전반을 망치고 있다.

▲농부가 하루 배고프다고 종자까지 먹어치우면 다음해 농사는 뭘로 짓겠느냐.

▲김종필총재는 자민련도 제3자에게 맡기고 정치의 제3자로 물러나 도덕경이나 읽기 바란다.

▲총선을 앞두고 얼굴마담 격으로 무임승차한 이회창의장이 실질적으로 신한국당의 선거를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의장은 김대통령의 용병으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했다.

▲'三載시계'는 지난 92년 대선때 '泳三시계'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 한푼도 안받았다는 김대통령과 돈이 없어 남의 당사까지 팔아 선거비용으로 쓴다는 여당의 총장이 웬 돈이 그렇게 많아 시계잔치인가.

▲TK를 한국병이라더니 PK라는 신한국병을 만들었습니다. 군화를 한국병 이라더니 등산화라는 신한국병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당도 신한국당의 '돈바람'을 흉내낼 수 없다. 공명선거라는 양머리를 내놓고 돈바람, 표적수사, 흑색선전이라는 개고기를 팔고 있는 곳이 신한국당 이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온갖 정력을 쏟고 있는데 사회를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 민주당은 아무 상관없이 폭로나 욕만 하고 다니는 당인데 나라를 제대로 맡길 수 있는가.

▲김종필씨는 한번도 소신있게 정치를 한적이 없는 분이다. 그런 인물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명분 하나를 내세워 우리 대구·경북을 마구 흔들고 있다. 자민련은 아직도 권력향수를 잊지 못하는 역대 대권자의 친인척집단에 불과하다.

▲우리 정치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병목지점을 벗어나지 못한채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 30여년을 버텨온 3金이라는 장벽에는 이제 부패의 곰팡이와 독선의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 뿐이다.

▲김윤환대표가 'TK의 이완용'이면 김종필총재는 '충청도의 이완용'이다.

▲그냥 놔뒀더라면 역사의 저쪽으로 사라졌을 김종필 총재를 결과적으로 절묘하게 살려내 보수논쟁에 불이 붙게 한 김영삼 대통령은 확실한 차기 노벨의학상 감이다.

▲YS의 안정론은 '권력누수 방지론'이고, DJ의 견제론은 '대권마련론'이며, JP의 보수원조론은 '이삭줍기론'일 뿐이니 하나로 묶으면 결국 '국민기만론'에 다름아니다.

▲국민회의는 이미 세번이나 대선에서 실패한 분이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만든 일인지하(一人之下)의 붕당이며 자민련은 집권당대표로 있던 분이 대권욕 때문에 만든 지역당이다.

현 대 만 평

박구원

국보 1호감!!

목어

행복의 제 1조건

국민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하다. 그런데 우리국민 30%가 위염·관절염·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로인한 생산성 손실이 3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도 사회도 개인도 예사로 보아 넘길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89년 17%에서 95년 33%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만성질환의 원인은 高영양, 운동부족, 스트레스라고 한다. 너무 잘 먹고, 시간이 없거나 게으른탓에 운동을 못하고, 정신적 부담을 안고 사는것이 '건강의 적'이 되고있다. 식탐을 덜고, 신체관리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스리는 등 노력여하에 따라 국민건강지수는 달라질수 있다.

그런데도 만성질환이 증가추이를 보이니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는 무서운 말을 우리는 실감못하나 보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을 위해 수면부족, 절제없는 식사, 근심, 과로, 애욕, 성냄등을 경계하셨다.

보사연도 건강을 위해 ①금연, ②절주, ③운동, ④적당한 체중유지, ⑤간식 안먹기, ⑥적당한 수면, ⑦규칙적 아침식사를 제시했다.

10~20대 절반이 아침을 거르고 남자고교생 52%가 흡연과 술을 마시고있는 것이 오늘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건강 적신호를 대비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면 과장일까.

정부는 국민체육시설과 예방의료시책을 세우고, 학교·직장·가정도 건강증진에 나서야 할때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외형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크해야겠다. 초등학교에서 상급생이 하급생의 돈을 뺏으려다 가위로 혀를 잘라낸 사건, 자살하는 노인, 이혼하는 부부등이 늘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해도 건강을 자부할 수 없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충족이 이뤄지지 않을때 부모에게 적개심을 품고, 그 결과 도둑질을 하고 남을 해칩니다. 그러니 건강과 행복의 뿌리는 가정입니다." 신경정신과 이동식박사의 진단이다. 새싹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노인들이 환히 웃을 수 있는 사회와 가정은 '국민건강'의 필수조건이다. '건강은 행복의 첫걸음'임을 명심하자.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뛰어난 승리자

전쟁터에서 싸워 백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법구경)

협찬 대한불교조계종 분황사 주지 종 수

성 명 서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전(前)이사장 한정섭에 대하여

위 한정섭은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전 이사장으로서 1996년 2월 16일자 서울지방법원 북부 지원 합의부에서 이사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이사회에서는 법인 정관과 시행 세칙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내외적으로 조용하게 수습하려고 하였으나 한정섭은 불자로서 반성과 참회보다는 재물욕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 도덕성이 마비된 언행을 부끄럽운 줄을 모르고 자행할 뿐만 아니라, 법인을 계속 사유화하고 파행적으로 몰아 갈 의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1996년 2월 23일 법원 합의부의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판결 이유의 핵심을 호도 함으로서 선량한 불자들의 선동 내지 동정을 구하고자 하는 비열한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임원들은 지리와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많은 불자님들의 정당한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뜻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1、한정섭은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 재직시 1995년 8월 5일자로 자청하여 이사장 권한을 상임이사 권세철 이사에게 위임하겠다 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10월 7일자로 다시 본인 스스로 이사장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10월 20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사표 수리가 되었으므로 감사가 문화체육부에 감사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한정섭은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법인체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소재 상락향 수도원 사찰 경내에 허가 없는 납골당을 설치하고 교화원 법인 명의로 분양 광고를 내어 1기당 8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씩 받고 수십 기를 분양하여 개인적으로 편취하였습니다.

가평군에서는 법적으로 상수도와 경관 보호 지역으로 납골당 허가가 날 수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음에도 허가가 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여 납골당 설치를 하였습니다.

①상락향 수도원은 본 법인체와 관계가 없는 한정섭 개인으로 등기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 법인체 명의를 도용하여 납골당을 분양하였다는 것.

②자손 10대까지 보장하며, 종교 부지로서 납골당이 항구성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선량한 불자들을 오인케 하였음.

③한정섭은 위의 탑묘(납골)설치 분양 사건으로 관할 지역인 가평군청에 행정 고발되었음.

④한정섭은 위의 탑묘(납골)사건으로 서울 지방검찰청에서 사건번호 95、13538호로 현재 입건조사를 받고 있음.

※위의 탑묘 관계는 감독관청의 원상복구 결정이 나서 분양 받은 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어도 본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은 하등에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한정섭은 이사장 취임 초반부터 법인체 발전과 불교 교리의 대중화를 위하여 물심양면의 헌신적인 협력을 바쳐 왔던 여러 임원들에 대하여 자기 개인 비리를 잘 알고 있음을 알고, 특히 상징적인 총재 및 교화원장, 통신대학장, 임원들을 도리어 불순분자라고 모해 매도하는 명예훼손을 자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작전상, 양심선언을 발표하여 11월 27일자로 교화원 업무 동결과 자기 측근들로 하여금 총재에게 질의를 하게 하여 녹음 도취를 하고 12월 5일까지 양심 선언문의 답변이 없을 시에는 적절한 법의 조치를 촉구하였으므로 총재는 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든 바 소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4、종교 지도자는 청렴 결백과 정직성이 근본인데 가짜 유니온대학 박사 학위증을 입수하여 철학박사로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타 법회에서 포교 왕이며, 생불(生佛)임을 자처하면서 모든 것을 사유화하는데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지도자 법사로서 위와같이 도덕성이 결여되고 비양심적인 행위가 선량한 불자들의 신앙심을 흐리게 하며, "5역지죄"중의 하나인 파화합승으로 한정섭은 불자들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불교는 감정이 아닌 이치라는 것을 현명한 불자님들께 알려 드리며, 또한 부처님께서는 세속을 떠난 사람은 세속 법으로 시비를 가리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한정섭에게 여러측면으로 타협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한정섭은 다시 지방 법원 합의부 판결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므로 한국불교교화원 임원진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명서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됨을 통찰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996년 3월 일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 권한대행 상임이사 권 세 철

교화원장 정 창 교

감 사 이 정 명